자전거 타고 신안 천도천색 매력에 빠져보자

섬 투어 자전거길
7개 코스 455㎞ 개설
염전·해송숲·백사장…
12개 섬 생생한 풍광 인기

■ 신안 비금·도초도 자전거 코스

(출발) 가산선착장▶명사십리해수욕장▶하누넘(하트해변)▶도초 수국공원▶시목해수욕장▶도초 화도선착장(도착)

느림은 자전거 여행의 묘미다. 느림에 익숙해질수록 바다를 따라 열리는 경치가 더 자세히 보인다.

바둑판처럼 네모반듯하게 늘어선 염전에 마치 흰 눈을 쌓아놓은 듯한 소금더미 장관,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펼쳐진 해변을 눈에 담으며 달리는 길은 더 없이 여유롭다.

더운 여름날에도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신안 '천도천색 천리길' 자전거길의 매력이기도 하다.

신안군이 관광객, 라이딩족들을 겨냥해 조성한 자전거길은 모두 7개 코스(455㎞)로 나뉜다. 7개 코스는 신안 12개 섬을 둘러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압해도와 증도, 임자도 등 큰 섬은 개별 코스로 조성했고 자은·암태·팔금·안좌도를 둘러보는 코스와 비금·도초, 하의·신의를 연결하는 코스로 나뉜다. 단조롭지만 바다에 기대어 있는 작은 해안마을을 훑고 지나가면서 생선을 손질하는 아낙, 그물을 다듬는 노부부 등 정겨운 풍경을 한껏 접할 수 있다는 게 코스별 매력이다.

압해도 코스는 신안군청을 출발, 죽도 노둣길~송공산 분재공원으로 이어지는 47㎞ 구간. 송공산 남쪽 10ha에 분재원, 미니수목원, 야생화원 등으로 꾸며진 송공산 분재공원과 저녁노을 미술관에서 바라보는 다도해 전경은 섬 라이딩의 백미로 꼽힐만하다.

슬로시티 증도를 둘러보는 코스는 볼거리가 즐비하다. 신안군 관광안내소~해저유물발굴기념비~짱뚱어다리~한반도해송숲~왕바위 선착장~화도 노둣길~태평염전까지 44.58㎞는 느림의 여유로움과 비슷한 풍광에서 오는 지루함을 떨쳐낼 볼거리가 많다.

임자도 코스(54㎞)에는 전국 젓새우의 70%를 생산하는 전장포를 비롯, 12㎞에 걸친 국내 최장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대광해수욕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은·암태·팔금·안좌도를 아우르는 120.32㎞에 달하는 코스는 머리와 꼬리를 맞대고 있는 연도교를 따라 고즈넉한 시골 어촌 풍경을 한껏 담아갈 수 있다. 썰물때면 2.5㎞의 바닷길이 열려 갯벌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노둣길은 암태도에서 '섬 속의 섬' 추포도로 이어지는 통로다.

비금·도초도 코스(71.36㎞)는 이세돌 고향으로 전국 최초로 천일염을 생산한 비금도 하트 해변과 도초도 풍성사구를 볼 수 있으며 흑산도 코스(25.08㎞)는 정약전이 후학을 양성하던 사촌서당을 비롯한 유배문화공원이 포함돼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와 큰바위얼굴, 농민운동기념관,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33선)에 꼽히고 신안에서 가장 많은 천일염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신의도 코스가 하의·신의(79.64㎞)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28일~8월 2일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강진·영암·신안 일대서…4개국 대항전 등 3개 부문

이창호

이세돌

박정환

'제 4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수(國手)의 고향' 전남 신안, 강진, 영암 일대에서 열린다.

대회는 우리나라 국수 계보를 잇는 김인(강진), 조훈현(영암), 이세돌(신안) 9단의 고향에서 ▲한·중·일·대만 단체바둑대항전 ▲국제페어바둑대회 ▲국제어린이 바둑대축제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올 단체바둑대항전에는 4개국 프로기사 12명이 참여하며 한국에서는 박정환 9단과 신진서 8단, 이세돌 9단이 출격한다. 중국에서는 커제, 렌샤오, 스웨가 나설 예정이며 일본은 이야마유타, 이치리키료, 고노린 등을 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바둑대항전의 우승상금은 5000만원, 준우승상금은 2000만원이다.

한·중·일·대만 남녀 프로기사 8명이 출전하는 국제페어바둑대회의 한국대표는 이창호 9단과 오유진 5단이 짝을 이뤄 3개국 선수들과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일본은 하네나오키·후지사와리나, 중국은 구리·잔잉, 대만은 천스위엔·헤이쟈자 등이 각각 짝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페어부문 우승상금은 2000만원, 준우승상금은 1000만원이다.

국제어린이 바둑대축제는 국내 선수 500명과 중국, 일본 등 외국에서 온 선수 200명 등 700명이 반상 대결을 펼치며 어린이 참가자들은 다음달 1일 개최지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남도문화체험에 나선다.

개막식은 28일 오후 6시부터 강진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폐막식은 31일 오후 6시 영암 기찬랜드에서 열린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영암=전봉헌기자 jbh@

김환기 화백 추모행사

신안군 25일 생가서

한국 현대회화의 선구자 수화(樹話) 김환기〈사진〉 화백의 추모 행사가 25일 열린다. 신안군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화백의 생가에서 유족,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환기 서거 추념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추념식 이후에는 '2017 김환기의 날' 행사의 하나로 김환기 창작아트센터에서 김 화백의 미술세계와 안좌도를 주제로 한 김 화백 차녀의 강연도 열린다.

앞서, 국내외 작가들이 지난 5월부터 진행중인 '제 25회 김환기 국제미술제전'에 참여, 안좌도에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작품은 다음달부터 조선대미술관 등에서 관람할 수 있다.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 화백은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적 추상 회화로 승화시켜 세계화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한편, 신안군이 추진중인 '김환기 미술관'은 예산 부족 등으로 여태껏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영수교(潁水橋)에는 매일 태극기가 펄럭인다. 함평군은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국기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태극기를 날마다 게양키로 했다. 〈함평군 제공〉

연중 태극기 펄럭이는 함평 영수교 郡, 깃대 세워 태극기 다리 조성

함평군이 이른바 '태극기' 다리를 조성, 눈길을 모은다.

함평군은 함평읍 기각리 영수교(潁水橋)에 깃대를 세우고 태극기를 달아 매일 펄럭이게 했다. 태극기의 참뜻을 되새기고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다. 심한 비바람, 폭풍우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

영수교는 함평교와 함께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다리로, 1920년대 초 함평교 개통 전까지는 함평천을 건너는 유일한 목조 다리였다. 1953년 홍수로 유실됐다가 이듬해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무안군의회 노인정책 발굴 간담회

무안군의회 의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 정책 발굴에 나섰다.

무안군의회는 최근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를 비롯한 각 읍·면 분회장, 노인대학장 등과 간담회〈사진〉를 갖고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의회는 이날 하반기 의회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노인층들에게 도움이 될 복지정책과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몽탄면과 망운면의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과 무안 연꽃축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협의, 지역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전남 최초 여성농업기술센터소장 탄생

윤혜경 영광농기센터소장

최근 취임한 윤혜경(59)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남 최초의 여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윤 신임 소장은 옥천면 출신으로, 전남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 유일한 여성 소장이다. 이 때문에 남성 위주의 농업 정책의 변화, 여성 농업인들을 감안한 농업 행정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윤 소장은 지난 1977년 곡성군 농촌지도소 근무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여수·화순 농업기술센터를 거쳐 지난 1995년부터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 농촌지도사업을 펼쳐왔다.

윤혜경 소장은 취임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 작목 개발에 힘쓰고 농업 정책의 4차 산업화 기반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k-land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신안동 주상복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 2칸) 일반물건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융자 2억5천, 보증금 5천, 월 143만원)

【법원 경매/공매】

토 지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준공업지역 개발촉진지구
토지 523평 감정가 311,000,000 최저가 311,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큰도로접 해안가
토지 1200평 감정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접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정가 58,000,000

근 린 시 설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풍암동성당인근
토지 102평 건물 223평 감정가 984,000,000 최저가 689,000,000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정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3493평 건물 1734평 감정가 49억 최저가 14억

공 장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뇨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나주 다시면 월태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정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일 반 물 건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제 성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성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륵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